

번호: OP-E-001					
제 목	생물테러에 대한 대응 방안 Strategies against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저 자 및 소 속	임현술, 배근량, 이관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Hyun-Sul Lim, Geun-Ryang Bae, Kwan Lee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Dongguk University				
분 야	역 학 [전염병 역학]	발 표 자	임현술 일반회원	발 표 형 식	구 연
<p>목적: 2001년 9월 세계무역센터 테러와 그 후 탄저균을 이용한 생물테러가 발생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테러에 대한 공포와 우려가 확산되었다. 우리나라는 올해 가을 부산에서 개최될 APEC 국제회의를 앞두고 있어 어느 때보다 생물테러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에 질병관리본부 생물테러대응과에서는 2005년 1월부터 3월까지 내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1,412명을 대상으로 생물테러에 대한 의료인의 인식 및 대처에 대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295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생물테러 가능 전염병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으나 대상자의 94.2%가 생물테러에 대비하기 위하여 의료인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교육이 관련 학회별로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구하여 발표하게 되었다.</p> <p>방법: 생물테러와 관련한 주요 논문과 저서, 생물테러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과 의료기관의 대처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p> <p>결과: 생물테러는 “잠재적으로 사회 붕괴를 의도하고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독소 등을 사용하여 살상을 하거나 사람, 동물 혹은 식물에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생물무기는 비용이 적게 들면서, 생산하거나 살포를 위한 은닉 및 운반이 용이하고, 테러의 계획단계와 발생 시 즉각적인 지나 차단 방법을 찾기 어려워 각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간 전파가 가능하며, 높은 사망률을 보이며, 사회적인 공황상태 및 사회 붕괴를 유발할 수 있고,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여 방심하면 국가 안전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은 두창, 탄저, 페스트, 보툴리눔 독소증, 바이러스성 출혈열(에볼라, 마버그열, 라싸열) 등의 질환을 1급으로 선정하였다. 정부의 추진 전략은 환자 발생을 조기 인지하기 위하여 전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의심 환자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병원체를 분리하고 균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험실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신속한 역학조사와 환자, 폭로자 및 접촉자 관리를 통한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생물테러 신속 대응을 위한 시스템 운영, 조기 감지를 위한 전염병 감시 강화를 위하여 법정 전염병 감시체계 강화, 감염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응급실 중심 중후군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조기 진단을 위하여 실험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조기 대응을 위한 사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p> <p>결론: 우리나라의 생물테러 대비는 시작 단계에 불과하여 지속적인 예산, 인력 투자가 필요하며, 향후에 해결하여야 과제가 많다. 생물테러는 발생 가능성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고 극히 낮을 수 있지만 발생하면 사회적인 혼란과 공황 상태를 초래하므로 대비가 최선의 예방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철저한 대응체계를 갖추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의료인은 생물테러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여 초등 신고부터 진단, 전파 차단, 환자 관리 및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p>					